

원 저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최정희, 황지민[†]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Incivility and stress coping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eong-Hee Choi, Ji-Min Hw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mong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study randomly sampled subjects from a group of 150 dental hygiene students attending the Chungcheong are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trainees experienced a level of incivility of 1.69, and their level of coping with the resulting stress was 2.58. The study found significant results in terms of gender,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when examining the incivility experienced by trainee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s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oidance focus among the sub-domains depending on the grade, number of practicum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dditionally, the problem-solving focus showed significant results depending o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incivility experienced by traine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oriented coping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r=.268$),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r=-.045$), and problem-solving-oriented coping ($r=-.034$)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If you find yourself in a situation where you encounter incivility, it is believed that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and assertiveness training can help you respond more actively instead of passively, which is an avoidance-oriented approach.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schools and training organizations should collaborate to establish an official reporting system to ensure that any instances of incivility experienced by trainees are not ignored.

Key Words: Incivility, Stress coping, Dental hygiene students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November 30, 2023 **Accepted after revision:** December 1, 2023

[†]**Correspondence to** Ji-Min Hw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Baekseokdaehak-ro 1, Dongnam-gu, Cheonan 31065, Korea
Tel: +82-41-550-2305, **Fax:** +82-41-550-2153, **E-mail:** jmyc0501@bscu.ac.kr

I. 서론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은 모든 교과목의 통합체로 학생이 교내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실제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직접 관찰, 수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된다(Shim, 2021). Brown(1960)에 의하면 임상실습 교육이란 강의실의 이론 교육을 보충, 통합하고 활용하여 기본 이론의 원리를 현장에서 응용케 하며, 개인적 특성을 가진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영적 보건요리를 파악하여 간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의료팀과 협조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직접 서비스와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임상실습 경험은 학생들이 지식을 통합하고 전문적 역할을 사회화하고 가치를 습득하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의 심장으로 묘사되고 있다(Mackie, 1973).

하지만 낮은 실습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거나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 자신의 역량이나 진로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Choi and Lee, 2017; Kim et al, 2017). 고도의 긴장감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새로워진 업무지식과 정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Yoon and Kim, 2011), 복잡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노동인 감정노동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Lambert et al, 2007). 이러한 불편한 실습 환경에서 무례함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접하게 되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정신건강과 전문직관 형성,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Hong et al, 2016; Kim et al, 2017; Koo and Kim, 2020).

무례함은 비의도적이고 불명확한 행동 특성들로 인해 쉽게 간과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쉬운 현상이며, 신체적 폭력 등과 달리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

처되어 진다(Andersson and Pearson, 1999; Jung et al, 2013).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강도가 낮은 반사회적이고 일탈된 행동을 의미한다(Andersson and Pearson, 1999). 이러한 무례함을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면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한 치위생과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보다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며(Hwang, 2011; Yeon, 2011),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Koo and Kim, 2020).

대처는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적응하려는 개인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며 개인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문제나 상황에 대해 문제해결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대처, 회피중심 대처를 함께 사용하여 적응의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Lazarus and Folkman, 2001). 사용하는 대처 기술이 늘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의 경과나 개인의 경험 및 상황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변할 수 있다(Lee, 2022). 어떤 문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대처 전략을 늘리는 반면 문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회피하려는 대처전략을 늘린다(Folkman et al, 1986).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적 행동을 의미한다(Billings and Moos, 1984).

치위생과의 경우 임상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과로 실습기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임상실습과 스트레스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으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상관성을 알아본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향후 임상실습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 추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동의를 안내한 후 조사하였다. 표본 크기의 근거는 G 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8, 효과크기 0.25를 기준으로 123명이 산출된 것이다. 최종 표본은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무례함에 관한 연구도구는 Anthony 등(2014)이 개발한 Th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or (UBCNE) 문항을 Jo와 Oh(2016)가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K-UBCNE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배타, 멸시, 거절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와 Oh(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도구는 Shin과

Kim(2002)이 개발한 한국형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orean Coping Strategy Indication, K-C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사회적 지지추구 .93, 문제해결중심 .89, 회피중심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는 사회적 지지추구 .93, 문제해결중심 .96, 회피중심 .90으로 나타났다.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최근 실습기관, 총 실습횟수, 치위생과 선택 동기, 임상실습 및 전공 만족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여 등분산 검정을 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무례함의 하위영역과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영역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시행하였으며,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IBM,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정도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 정도는 1.69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멸시가 1.82로 가장 높았다. 실습생이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는 2.58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문제해결 중심이 2.84로 가장 높았다(Table 1).

Table 1.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 정도

Variable	M±SD
무례함	1.69±.750
배타	1.68±.759
멸시	1.82±.927
거절	1.58±.724
스트레스 대처	2.58±.547
사회적지지 추구	2.79±.681
문제해결 중심	2.84±.696
회피 중심	2.11±.65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임상실습 및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하위영역인 배타, 멸시, 거절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임상실습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가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이 매우 불만족한 경우 배타 2.91, 멸시 3.24, 거절 2.62였으며, 임상실습이 매우 만족한 경우에는 배타 1.10, 멸시 1.13, 거절 1.14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스트레스 대처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실습 횟수,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하위영역 중 회피 중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는 문제해결 중심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회피중심의 경우 2학년이 1.98, 3학년이 2.27이었으며, 1회 실습을 한 경우 1.95, 3회 실습을 한 경우 2.30으로 학년과 실습 횟수가 높을수록 회피중심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전공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해결 중심 점수는 낮았으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중심

점수는 높았다(Table 3).

4.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회피 중심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r=.268$)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스트레스 대처 하위영역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경우 4점 만점에 1.69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멸시가 1.82로 가장 높았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무례함에 대한 점수가 1.81, 멸시는 2.09였으며(Shim, 202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무례함이 1.58 (Kwak et al, 2021), 5점 만점에서는 2.63으로 나타났다(Koo and Kim, 2020). Anthony 등(2014)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실습생들을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신들의 업무에 방해자로 생각하여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공격적이고 예의 없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과와 치위생과의 경우 임상실습을 통하여 전문가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그 환경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사회화를 겪어야 하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습득하는 것 같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중 직면하는 스트레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각각 3.24

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배타			멸시			거절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학년	2학년	84 (56.0)	1.58±.747	-1.797		1.66±.907	-2.363*	1.48±.708	-1.853		
	3학년	66 (44.0)	2.80±.761			2.02±.921		1.70±.731			
최근 실습기관	대학병원	8 (5.3)	2.07±1.084	1.022	n/a	2.47±1.278	1.755	2.00±1.321	1.298	n/a	
	치과병원	21 (14.0)	1.59±.685			1.63±.700		1.41±.546			
	치과의원	114 (76.0)	1.68±.759			1.80±.934		1.59±.706			
	보건소	7 (4.7)	1.45±.472			2.02±.795		1.52±.503			
	1회	81 (54.0)	1.58±.752	-1.780		1.65±.910	-2.451*	1.48±.714	-1.190		
총 실습 횟수	3회	69 (46.0)	1.80±.754			2.02±.914		1.70±.722			
	직업적 호감	39 (26.0)	1.68±.768	1.728	n/a	1.86±.969	1.087	1.60±.775	1.039	n/a	
치위생과 선택 동기	성적 고려	9 (6.0)	1.84±1.008			2.13±.888		1.85±.987			
	부모/타인의 권유	23 (15.3)	1.41±.571			1.68±.837		1.42±.543			
	취업 고려	74 (49.3)	1.70±.714			1.76±.895		1.56±.671			
	기타	5 (3.3)	2.32±1.308			2.48±.1.460		2.00±1.224			
	매우 불만족 ^a	9 (6.0)	2.91±1.049	20.198***	d<b<a	3.24±1.108	24.607***	2.62±1.059	13.856***	d<b<a	
임상실습 만족도	불만족 ^b	24 (16.0)	2.10±.738			2.55±.950		1.93±.728			
	만족 ^c	98 (65.3)	1.57±.627			1.64±.732		1.48±.622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d	19 (12.7)	1.10±.252			1.13±.377		1.14±.339			
	불만족 ^a	27 (18.0)	1.99±.771	4.778*	c<a	2.25±.939	3.789	1.90±.696	4.389	c<a	
	만족 ^b	103 (68.7)	1.66±.753			1.75±.894		1.55±.729			
매우 만족 ^c	20 (13.3)	1.32±.613			1.62±.960		1.30±.601				

Data was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statist.
*p<0.05, ***p<0.001.

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생이 경험한 스트레스 대처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사회적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학년	2학년	84 (56.0)	2.77±.724	-.307		2.88±.726	.829		1.98±.641	-2.699**	
	3학년	66 (44.0)	2.81±.627			2.79±.657			2.27±.642		
최근 실습기관	대학병원	8 (5.3)	3.23±.593	1.440	n/a	3.13±.704	.515	n/a	2.61±.900	2.660	n/a
	치과병원	21 (14.0)	2.66±.613			2.87±.661			1.90±.603		
	치과의원	114 (76.0)	2.78±.694			2.82±.720			2.10±.645		
	보건소	7 (4.7)	2.85±.673			2.81±.336			2.33±.322		
	1회	81 (54.0)	2.77±.724	-389		2.87±.722	.482		1.95±.598	-3.414**	
총 실습 횟수	3회	69 (46.0)	2.81±.631	.483	n/a	2.81±.669	.275	n/a	2.30±.671	1.027	n/a
	직업적 호감	39 (26.0)	2.70±.632			2.85±.663			2.01±.603		
치위생과 선택 동기	성적 고려	9 (6.0)	2.70±1.015			2.79±.886			2.38±.986		
	부모/타인의 권유	23 (15.3)	2.73±.826			2.72±.876			1.98±.630		
	취업 고려	74 (49.3)	2.86±.615			2.89±.621			2.17±.608		
	기타	5 (3.3)	2.89±.739			2.78±.961			2.20±1.089		
	매우 불만족 ^a	9 (6.0)	2.86±.532	1.037	n/a	2.56±1.022	1.448	n/a	2.18±.873	4.511**	d<a<b
임상실습 만족도	불만족 ^b	24 (16.0)	2.57±.610			2.65±.558			2.44±.403		
	만족 ^c	98 (65.3)	2.84±.650			2.89±.630			2.10±.632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d	19 (12.7)	2.79±.940	2.449	a<c	2.96±.946	4.661*	a<c	1.73±.738	.759	n/a
	불만족 ^a	27 (18.0)	2.61±.569			2.53±.722			2.20±.497		
	만족 ^b	103 (68.7)	2.78±.671			2.87±.658			2.11±.681		
	매우 만족 ^c	20 (13.3)	3.05±.812			3.13±.735			1.96±.707		

Data was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statist.
*p<0.05, **p<0.01.

Table 4.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련성

	무례함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
무례함	1			
사회적 지지추구	-.045	1		
문제해결 중심	-.034	.754***	1	
회피 중심	.268**	.351***	.315***	1

Data was analysed by pearson correlation statistics.
** $p < 0.01$, *** $p < 0.001$.

(Kim et al, 2017), 1.83 (Koo and Kim, 2020)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문제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대처 전략을 늘린다(Folkman and Lazarus, 1986). Lazarus(1993)는 상황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다변하는 상황에서 대처방법의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무례함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과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대처를 유연하게 바뀌거나 사용하는 것(Lazarus, 1993)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도 무례함에 대하여 다양한 대처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무례함의 하위영역인 배타, 멸시, 거절이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임상에서 치위생과 실습생으로서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키워준다면 올바른 치과위생사의 가치관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과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기대, 만족도를 저하시키므로 이를 위한 관리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스트레스 대처 중 회피 중심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례함을 많이 경험 할수록 사회적 지지추구와 문제해결 중심 대처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의 결과에서는 임상실습 중 직면하는 스트레스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무례한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회피중심 대처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Leiter, 1991) 무례한 상황을 실습생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urtis 등(2007)은 임상실습지에서 스텝과 실습생 간에 발생하는 충돌 상황은 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인내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면 임상실습을 마치게 되므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함에 노출이 되게 되면 무례함을 학습하게 되어 자신도 무례함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Andersson and Pearson, 1999) 긍정적이고 건강한 임상실습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과 학생이 실습기관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진로선택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회피중심 전략인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무례함을 간과하지 않도록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력하여 공식적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Hong et al, 2016).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에는 전국 치위생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위생과 실습생이 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포괄적인 무례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V. 참고문헌

- Andersson LM, Pearson CM. Tit for T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 Manag Rev* 1999;24(3):452-71.
- Anthony M, Yastik J, MacDonald DA, Marshall K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Prof Nurs* 2014;30(1):48-55.
- Billings AG, Moos RH.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 Pers Soc Psychol* 1984;46(4):877-91.
- Brown AF. Curriculum development. Philadelphia (PA): W.B. Saunders; 1960. p. 380.
- Choi SS, Lee YH. Stress and self-estee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in selected dental hygiene departments. *J Korean Clin Health Sci* 2017;5(3):953-62.
- Curtis J, Bowen I, Reid A.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 Pract* 2007;7(3):156-63.
-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Gruen RJ.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 Pers Soc Psychol* 1986;50(5):992-1003.
- Hong Y, Kim Y, Son H. Effect of nurses'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Nurs* 2016;22(4):323-31.
- Hwang HJ. Coping strategy for the job stress in the outpatient and ward nurses of some university hospitals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ersity; 2011.
- Jo SO, Oh J.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 tool to measur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6;22(4):537-48.
- Jung HJ, Chung HI, Choi KC, Cho AY, Chae YM, Choi KH, et al. Experience, emotional reaction and coping behavior of verbal abuse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3;8(2):99-108.
- Kim JG, Yoo JH, Cheon EY.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KAIS* 2017;18(1):316-24.
- Koo SM, Kim HJ. The effect of the degree of incivility experienced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stress coping strategy on the formation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J Converg Inf Technol* 2020;10(3):104-14.
- Kwak E, Yun H, Park M.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JKAIS* 2021;22(2):160-8.
- Lambert EG, Hogan NL, Griffin ML. The impact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on correctional staf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 Crim Justice* 2007;35(6):644-56.
- Lazarus RS.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 Med* 1993;55(3):234-47.
-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Kim JH, translator. Seoul: Daegwang; 2001.
- Lee CM. Effects of incivility and coping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on caring efficacy. *J Kyungpook Nurs Sci* 2022;26(1):25-37.
- Leiter MP. Coping patterns as predictors of burnout: the function of control and escapist coping patterns. *J Organ Behav* 1991;12(2):123-44.
- Mackie JB. Comparison of student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experiences in two teaching process models. *Nurs Res* 1973;22(3):262-6.

Shim HJ. The influence of incivility and stress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upon professional identity. *J Converg Inf Technol* 2021;11(12):182-93.

Shin HJ, Kim CD.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2;14(4):919-35.

Yeon E.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post anesthetic care unit nurses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11.

Yoon SU, Kim JS. 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mong some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1;11(2):179-88.